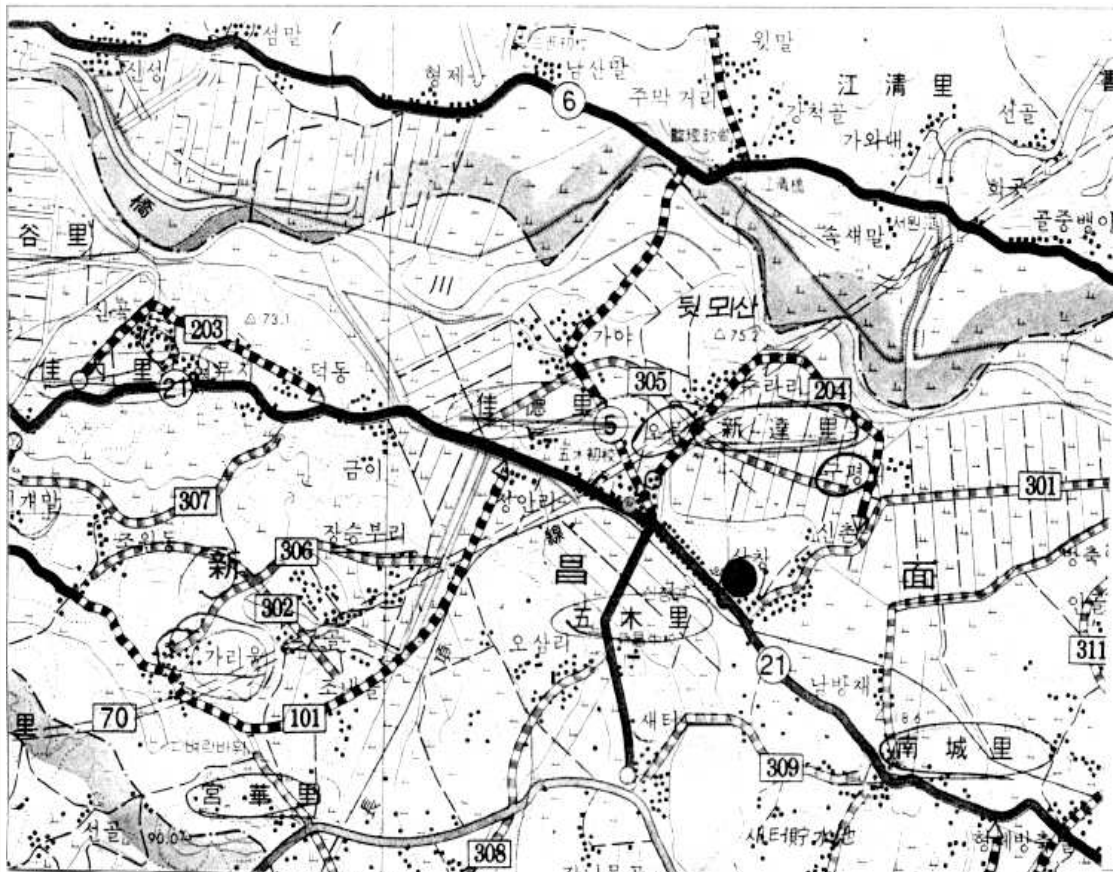


* 마을사 *

가덕리·佳德里

가덕리는 신창면의 한 마을로 가애, 거미 마을로 나뉘며,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마을로 알려져 있다. '가덕리'란 '덕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유래 되었으며 총인구수는 496명이며, 가구수는 147호에 이른다. 본래는 신창군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야리, 거산리, 덕동, 화산리, 궁동 각 일부와 소동면의 화달리 일부와 아산군 삼서면의 형제동 일부를 병합하여 가야와 덕동의 이름을 따서 가덕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속하였다가 1921년 다시 신창면에 편입되었다.

<가덕리 위치도>



⊗ 가애, 거미 마을 (가덕리)

가덕1리를 총칭하여 가애마을이라 하며, 가애마을은 당곶말, 덜머리, 새터말로 나뉘며, 가애 또는 가이에 마을은 가야라고도 하는데 "가이"는 개고장의 고어이고, 애는 창자라는 뜻으로 갯고랑 창자처럼 갯고랑 옆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며, 당곶말 마을은 조수를 이용해 무역하던 중국 사람이 살던 불쑥 빠져 나온 마을이란 뜻이며, 덜머리 마을은 들머리의 옛말인데 드나드는 첫머리라는 뜻이며, 새터는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이다. 가덕2리는 그미와 덕리로 나뉘며, 거미 마을은 그미, 거산, 거산리라고도 부르며, 가애들 건너 서쪽에 있는 마을로 금리가 그미로 음이 변한 것이 나중에 거미로 변한 것이며, 덕디는 "덕"이 높다라는 뜻이고, "디"는 장소를 말한다.

<조사당시 가덕리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가애 마을은 위도 36-48-50, 경도 127-55-50인 지역에 위치해 있고, 면소재지에서 약 1.5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아산에서 신창방면으로 가다 오목에서 우측에 보이는 마을이 가애 마을이다.

거미 마을은 위도 36-48-20, 경도 127-54-5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면소재지에서 약 2km정도 떨어져 있으며 21번 도로에서 볼 때 좌측에 위치해 있다.

2) 현 황

가애 마을은 총 인구수는 255명으로 남자 133명, 여자 122명에 이르고 있으며, 호구수는 84호이고 주민의 7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거미 마을의 총 인구수는 총 241명으로 남자 127명 여자 114명으로 남자가 많으며, 호구수는 63호에 이르며, 67%가 농업에 조사하며, 축산업이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가애 마을	255명	133명	122명
거미 마을	241명	127명	114명

- 생 업

구 분	계	농 업	축 산 업	기타서비스업
-----	---	-----	-------	--------

마을명				
가애 마을	100%	76%	-	24%
거미 마을	100%	67%	33%	-

가애 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논 77ha, 밭 31ha로 논이 훨씬 많으며, 거마에 비해 농경지가 많은 편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등을 영농에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시설을 갖춘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거미마을의 농경지는 논 65ha, 밭 24ha 이며, 거미마을 역시 가애마을과 마찬가지로 논이 밭에 비해 훨씬 많으며, 농기계 보유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 등을 농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앰프시설을 갖춘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가애 마을	108ha	77ha	31ha
거미 마을	100ha	67ha	33ha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 회관	기타 문화시설
가애 마을	1개소	1개소	-
거미 마을	1개소	1개소	-

가애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김씨 20%, 이씨 16%, 최씨 18%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마을에 비해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거미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원씨 13%, 오씨 13%, 기타성씨 74%로 조사 되었고, 이 마을 역시 강애마을과 마찬가지로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 되어 있다. 학생들은 총 40여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오씨	김씨	이씨	최씨	원씨	기타성씨
가애 마을	84호	-	13호	17호	15호	-	39호
거미 마을	63호	8호	-	-	-	8호	47호

- 최고령자

가애 마을의 최고령자는 임규수씨로 90세이시며, 거미 마을의 최고령자는 명 채옥씨로 83세이다.

3) 자연경관

가애 마을은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무역을 했던 곳으로 나루터와 방죽이 있었으며, 논밭과 가옥이 분리되어 있다. 가옥은 야산을 따라 주로 분포해 있고 논밭은 평준한 지형에 위치해 있다. 가야 당집은 덜머리 옛 당곳에 드나들던 중국사람이나 뱃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거미마을은 마을 뒤로는 그미산과 작은 뒷산이 있어 자원이 풍부하며, 덕디 뒤로는 곡교천이 흐른다. 이 마을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배산임수형의 산세를 지니고 있어 사

람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

4) 마을변천과정

가애 마을과 거미 마을은 본래 신창군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야리, 거산리, 덕동, 화산리, 궁동 각 일부와 소동면의 화달리 일부와 아산군 삼서면의 형제동 일부를 병합하여 가야와 덕동의 이름을 가덕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속했다가 1921년 다시 신창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가애 마을은 백제 시대부터 무역을 하던 곳이므로 정착하여 사는 주민보다 왕래하는 외부 주민이 많던 곳으로, 형성년대는 서기 1400년경 약600년경으로 추측되며, 현재 많이 살고 있는 성씨는 김씨와 최씨로 조사 되었다.

거미 마을은 형성년대는 가애와 비슷한 서기 1400년경 약 600년경으로 추측되며,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 옛날에는 이 마을로 모여드는 사람이 많았으나 바다가 사라지고 무역이 줄어들자 점점 더 인구의 수가 감소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가 늘어났다. 현재는 오씨와 원씨가 많이 살고 있다.

6) 지 명

十 가애 마을의 지명

- 가애(가이애) : 가덕리에서 가장 큰 마을. '가이'는 갯고랑의 고어이고, '애'는 창자라는 뜻으로 갯고랑 창자처럼 갯고랑 옆에 있는 마을이란 뜻임.
- 당곳말(당꼬머리) : 덜대리 옆에 있는 마을. 조수를 이용해 무역하던 중국사람이 살던 불쭉 빠져나온 마을이란 뜻임.
- 덜머리 : 새터말 뒤 너머에 있는 마을. 가애들 아래 머리쪽이 된다. 덜머리는 덜머리의 옛말인데 드나드는 첫머리라는 뜻임. 옛 조선시대에는 새우젓 배가 많이 들어왔음.
- 새터말 : 가애 옆에 새로 된 마을.
- 바깥신원 : 안신원 바깥쪽에 있는 들.
- 부엌골 : 새터말 앞에 있는 들. 봉이 살던 곳이란 뜻임.
- 안신원 : 덜머리 앞에 있는들. 새로 언을 쌓은 안쪽에 있는 들이란 뜻임.
- 굴샘 : 생굴 마을 아래에 있는 샘인데 일년내내 마르지 않는 수원이 풍부한 샘.
- 시내기벌 : 봉골 옆에 있는 기슭인데 옛날에는 기와집이 많았는데 화재와 전염병으로 폐동이 된 자리라는 전설이 있으며 토취장으로 변했음.
- 칠성벌 : 가덕리, 오목리, 신달 리가 맞닿는 곳으로 옛날부터 애장이 많아 칠성벌이라 불려왔음.
- 가야당집 : 덜머리 옛 당곳에 드나들던 중국사람이나 뱃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백제시대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덕디방죽 : 덕디 앞에 있는 방죽.
- 생골 : 새터 말 위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아래 샘이 있다하여 샘골 또는 생골.

十 거미 마을의 지명

- 거미 : 가애를 건너 서쪽에 있는 마을. 금리가 그미로 음이 변한것에 나중에 거미로 변한 것임. 또는 뒷산의 모양이 거미처럼 생겨서 거미, 또는 그미라 함.
- 덕디 : 거미 서쪽 뒤 너머에 있는 마을. 높은 지대의 평평한 마을이란 뜻으로 생긴 이름임. '덕'은 높다는 뜻이고 '디'는 장소라는 말임.
- 그미산 : 거미 마을 뒷산을 말하는데 마을 이름이 이 산 이름에서 유래 되었음.
- 작은 뒷피 : 뒷산 (그미 -산)에 비하여 작은 산. 현재는 토취장이 되어 전답으로 변하고 있음.
- 거밋들 : 거미 앞에 있는 넓은 들.
- 서낭당 고개 : 거미 뒤에는 덕디로 넘어가는 고개. 늙은 참나무가 성화되어 있었음.

·거미다리(거산교, 가덕교): 거미앞에 있는 다리. 1963년에 고쳐 놓았음.

7) 전 설

十 당집 제사에 관한 전설(가애 마을)

왜정때에는 제사에 올릴 술을 뺏기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숨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옛날에 시어머니와 두 내외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제사를 지낼 술을 담갔는데 2주동안 발효를 해야 익는 술이 4일만에 발효됐다 하여 그의 아들이 술을 마시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행사

가애 마을은 당집은 나무로 지었는데 나무가 썩고 무너져서 4년전쯤 시멘트로 다시 지었다. 당집에는 아주 큰 팽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며 작은 버드나무만이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음력 정월 14일이 되면 생기복덕으로 운이 닿는 사람이 당집에서 제를 지내는데 제관이나 축관등 주최측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며, 부부간의 합방도 금한다.

거미 마을은 지금의 경로당 자리가 성황당 자리여서 해마다 제를 올리고는 했으나 해방 뒤로는 없어졌다.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10) 종교단체

가애 마을은 특별한 종교 단체는 없다.

거미 마을은 기독교로 가덕 목양교회가 있으며, 신도수는 36명정도 이며, 가덕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신도수는 163여명 으로 조사 되었다.

11) 공장현황

가애 마을에는 홈세라믹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휴업중이며, 거미 마을에는 의약품 제조 공장과 벨트 및 부직포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

力홈세라믹(주) : 가덕리 165. 도자기. 91. 3. 8. 면적 12,643㎡ 휴업중

力아람양돈영농조합법인: 가덕 539 비료 및 질소화합물 94. 8. 17.

면적 3,545㎡ 종업원수 17명

力코덕화학공업 : 가덕리 368. 의약품 제조. 허가일 96. 10. 2. 면적 2843㎡

종업원수 10명

力동국산업 (주) : 가덕 520 자동차부품제조업 97. 3. 13. 면적 19,937㎡ 건축중

力정봉(주) : 가덕리 311-2 벨트 및 부직포제 허가일 94., 7. 26. 면적 10,443㎡ 종업원수 22명

12) 마을의 특성

가애마을은 옛부터 무역을 하던 곳으로 역사가 매우 깊지만 포구가 없어지면서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 지금은 인구수가 많이 줄었지만 주로 벼 농사를 많이 짓고 아직도 시골 인심이 그대로 남아 있다.

거미 마을은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서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주로 벼농사를 많이 짓고 , 마을에 공장이 있으며, 아직도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기좋은 마을이다.